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명 : 김옥란, 박상현, 신현길, 조형준, 최주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전국 단위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객개발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장르대표공연예술제’ (다년 지원)와 3년 이상 연례적으로 개최된 ‘우수공연예술제’ (단년 지원)로 구분하여 역사적 성격이 큰 공연예술제의 안정적인 보존·유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는 공연예술제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신청은 총 29건입니다. 대상별로는 장르대표공연예술제 5건, 우수공연예술제 24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공연 등 연례행사를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한 단체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긴 사업계획서가 많았습니다. 규모면에서도, 총 40개 단체가 지원했던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신규단체 지원은 6건으로 축제가 다변화되고 동시대적 의미의 새로운 축제가 조직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의는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먼저 개별적으로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전수검토의견서와 가채점표를 작성·제출한 후 심의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심의회의에서는 가채점 고득점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기본 요건인 전국규모 축제로서의 성격이 명확한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조직과 실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축제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예술단체·예술가 구성의 적합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심의기준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역사성을 가진 축제의 경우 ‘장르대표 공연예술제’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년(3년) 지원의 의의를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전반적으로 심의위원 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공공성, 차별성, 다양성 면에서 심의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첫째로 기존에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지원을 받아오던 지역 대표 예술제가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서, 같은 지원체제 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경쟁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난감한 상황에 대하여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심의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지막까지 논의 대상이 된 것은 ‘늘푸른 연극제’의 경우였습니다. 동일한 명칭의 사업에 대해 지원신청 단체가 2곳으로 중복된 경우입니다. 게다가 동일한 사업으로 두 단체가 지난 3년간 반목과 경쟁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데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지원의 부적정성까지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후 중재안으로, 두 단체의 공동주최 혹은 주최/주관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 심의위원 간에도 어렵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결과입니다. 연극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두 단체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기존에 집행된 예산과 지원신청액,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았을 때 무리하게 예산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결국 축제 참여 예술가에 대한 고통분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예산 심의에 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사업계획 및 규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급적 지원신청액에 근접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숙고하였습니다. 다만, 장르대표공연예술제 신청사업의 경우, 다년 지원의 근거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아쉽게도 우수공연예술제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단체의 추가적인 예산배분 소요가 없기에 잔여예산을 남겨두었고 이는 예산감액이 되었던 기존 장르대표공연예술제 등으로 예산이 활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성과 안정성이 중시되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그 역사적 생명력은 언제까지일지, 동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게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규 진입 축제들을 통해 느리지만 조용한 변화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축제를 꾸리면서, 관객 평가를 마주하면서 고심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선정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명 : 박성혜, 박희태, 안지혜, 한경자, 황윤숙

본 심의회의에서는 무용을 매개로 다양한 공연예술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여러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한 모든 사업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각 사업별 목적과 개성이 분명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용 분야에서 고르게 편성되어 있는 장르별, 지역별 다양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었고,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많은 인력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의대상 건수는 29건 이었으며, 심의는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전 전수검토 과정을 통하여 모든 신청서류를 검토 하였고, 2차로 심의위원이 대면하여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역량, 사회적역할의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층 토론의 심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각 사업별 기획 의도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프로그램 구성 내용과 참여 예술가 및 참여 인력의 다양성과 확장성, 축제 일정의 타당성, 사업 이후의 성과 관리 및 사업 공간의 실행가능 여부, 참여자 및 관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 이외에도 각종 행정적 운영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성과 주체성, 동시에 무용 공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함께 역사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용 축제로의 지속 가능성과 향유의 기회 제공,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 단체의 의욕과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심의를 결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공연예술제 무용분야의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감액되어 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공연예술제 간의 사업규모 및 사업성격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장르대표공연예술제의 경우 무용계 내에서의 상징성과 그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원신청된 각각의 축제 사업들이 보이고 있는 역사성과 함께 각 단체들이 보이고 있는 다채로운 미션들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향후 무용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과 예산편성에 다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지적, 여타의 사업들과 차별성에 대한 적극적 모색과 대안의 필요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무용계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대면 사업으로의 진행이 가능해 지면서 재도약을 모색하는

적극적 축제기획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창작방식과 홍보 또한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지원 신청한 모든 단체의 열의와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모든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명 : 구모영, 박선희, 박준영, 류태형, 이나리메

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의 취지 즉, 목적은 우수한 공연예술의 장을 구축하고 국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예술적 가치 실현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고문에서 밝힌 대로 1)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었는지, 2)사업을 수행하는 역량이 우수한지, 3)사회에 미치는 역할이 바람직하고 그 기여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제는 각기 다른 토양과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잣대로 심의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다양성 존중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지원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여 그 목적과 목표에 타당하고 적합한지 거듭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예술제의 핵심 요소라고 꼽을 수 있는 예술적 방향성, 운영 조직력, 관객향유의 측면에서 신청사업을 다각도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수의 신청사업이 심혈을 기울여 예술제를 개최하려는 의지와 최선의 노력을 담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었으며, 그만큼 심의의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본 지원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관성에 따라 혹은 타성에 매몰된 듯 작성된 신청서가 더러 눈에 띄어 아쉬웠습니다. 이는 신청사업의 역사와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역사가 있는 예술제에는 시대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그리고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예술제에는 명확한 예술적 정체성과 방향성의 확립이 선행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술제는 공간이 특정되고 시간이 한정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보편적 개념을 벗어난 신청사업의 경우, 자칫 시리즈 공연과 유사하고 양자 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나아가 집적체로서 갖는 예술제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완이나 대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조직구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예술제의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다년간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사무 조직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에 더하여 주어진 자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처리하는 거버넌스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예술제가 이 부분에 대

해 미흡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는 지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예산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형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와 비등하게 참여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목적이 바로 관객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니만큼 모범적으로 탁월한 전략과 분석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한 예술제가 있는 반면, 대개는 일반적 수준의 대동소이한 방안을 제시하여 아쉬웠습니다. 각 예술제마다 다른 환경에 있으므로 실현 가능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관객 홍보 마케팅을 계획하는 것이 심의하는데 주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정되신 단체분들께는 음악제를 원활하게 개최하실 수 있도록 제한된 지원금 예산안에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더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음악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층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고 음악계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정성들여 음악제를 준비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3:3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명 : 김동원, 김용호, 윤중강, 채인영, 황호준

본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기반 구축과 국민향유기회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우수한 공연예술제를 통한 국민향유기회와 밀접하기에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역량은 물론 앞으로 축제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관한 ‘사회적 역할’까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예술 지원신청 건은 총 19건이었으며, 심의위원들은 1차적으로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하며 모든 서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전수 검토한 결과 모두 양질의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심의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거의 일치했음을 확인하고, 지원신청 단체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예술’ 범주 안에서의 공연 형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장르를 고르게 안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초예술 안에서 전통예술의 자생성은 요원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통예술의 시장성과 예술적·문화적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세부장르나 접근 방식에 큰 주안점을 가지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자생성(自生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보다는 좋은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축제의 존속 및 운영에 어려움이 짐작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전통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더욱 부합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예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세부장르의 안배를 생각하면서 심의위원 사이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정 단체에 대해서는 축제의 규모와 예산계획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단체를 지원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단체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전통분야 축제가 잘 진행

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축제 사업이 알차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다원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3:3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명 : 강석란, 박지선, 안남일, 유원준, 윤종연

본 사업은 기초공연예술행사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공연예술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예술 기반 구축과 국민 향유기회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다원예술’ 분야에는 8개 단체가 공모하였으며 그 중 행정결격 사유가 확인된 1개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수행 역량, 사회적 역할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부분에서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업구성 및 예산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역량 부분에서는 조직 운영과 홍보 마케팅, 그리고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역할 부분에서는 공연을 통한 사회 기여와 권리보장 부분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다원예술’ 분야의 경우 종합 공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구성, 현장 공연의 특성, 그리고 공연 실행 방법론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중점 고려사항으로 삼았으며,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의는 전담 심의위원제로 진행하였고 사전에 모든 지원 서류를 전수 검토하고 개별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심의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적 역량 및 공연 내용의 예술적 성취,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운영 및 유의미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7개 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를 평균화하여 산출된 점수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고, 1,2,3순위 3개 단체를 지원하기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융복합 성격의 공연이라는 점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강점을 갖춰 ‘다원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신청된 사업 대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심의를 진행하면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향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예산의 증액과 ‘다원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예산증액의 필요성 등 개선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다원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 서류의 충실한 내용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되지 못한 단체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선정된 단체분들께는 기대만큼 배정되지 못함에 대한 양해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선정된 단체들을 통해 우리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연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단체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